

재독한국여성모임 30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떠나면 타향에서 하루, 하루 새로운 역사를 힘들게 만들어 왔을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지난날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도 매년 5 월이면 85 년부터 끊임없이 오월 민중제를 개최하며, 조국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결코 놓지 않았던 여러분의 열정과 활동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거울을 통해 미래를 보는 의미있는 30 주년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독한국여성모임과 5·18 기념재단은 연대를 통해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더욱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 윤광장